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26년 7월 13일(월)

관련자료: 사진자료

‘2026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성황리에 마쳐

- 스코틀랜드 노스 베릭(North Berwick)에서 세계 정상급 골퍼들 명승부 펼쳐
- 김주형 최종합계 17 언더파 263 타 우승 ... 상금 157 만 5000 달러 및 GV60 마그마 모델 획득
- 제네시스 ‘박스 버기 콘셉트 코스 내 전사로 차별화된 이동 경험 제시 ... 글로벌 골프 스폰서십 강화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스코틀랜드 노스 베릭(North Berwick)에 위치한 르네상스 클럽(The Renaissance Club)에서 나흘간 진행된 ‘2026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3 일 밝혔다.

DP 월드투어, PGA 투어, KPGA 코리안투어 소속 선수 156 명이 참가해 치열한 우승 경쟁을 벌인 대회장에는 총 91,128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역대 최대 관중 수를 기록했다.

‘2026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의 우승 트로피는 최종합계 17 언더파 263 타를 기록한 김주형 선수가 차지했다. 김주형 선수는 상금 157 만 달러와 함께 부상으로 GV60 마그마 모델을 받았다. 2 위는 15 언더파 265 타를 기록한 이민우 선수(호주)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22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에서 3 위를 차지한 바 있는 김주형 선수는 이로써 PGA 투어 통산 4 승을 기록했다.



PRESS RELEASE

김주형 선수는 “한국인 선수 최초로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을 우승했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며 “제네시스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선수 가족들까지도 세심하게 챙기는 훌륭한 후원사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제네시스 후원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네시스는 르네상스 클럽 곳곳에 ▲GV60 마그마 ▲GMR-001 하이퍼카 1:2 스케일 모델 ▲GV70 전동화 모델 등 총 14 대의 차량을 전시해 방문객들이 제네시스만의 럭셔리 감성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했으며,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제네시스 차량 135 대를 제공했다.

이 밖에도 15 번 홀 인근에 새롭게 조성된 ‘제네시스 퍼블릭 라운지’에서는 제네시스 골프 컬렉션 전시와 골프 시뮬레이터(TGL) 연계 프로그램 등이 진행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달 세계 최고 권위의 내구 레이스인 ‘르망 24 시간(24 Heures du Mans)’ 현장에서 공개된 제네시스 ‘박스 버기(Box-Buggy)’ 콘셉트도 전시되어 관심을 모았다.

박스 버기 콘셉트는 4 개의 독립 구동 모터와 4 륜 조향 시스템을 탑재해 각 바퀴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으며, 레이스 서킷이나 골프 코스 등 제한된 공간에서 높은 기동성을 확보하며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외장은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인 두 줄 헤드램프와 애틀란틱 블루 매트 컬러의 조화로 현대적인 미학을 표현했으며, 실내는 제네시스의 ‘손님’ 철학을 반영한



PRESS RELEASE

2+2 시트 구성에 베이지 톤과 알루미늄 소재, 타탄 패턴 직물을 조합해 편안함과
환대감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완성했다. [끝]